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무주 만든다 “무주다운 무주 군민을 행복하게”

공공부문 사용 실태 조사·대책 공유... 교육·홍보 등 인식 확산·실천 확대

무주군이 1회용품 제로화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무주군은 '착한실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를 만들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친환경 무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청을 비롯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부문에서는 우선 ▲재활용품(환경포지인증제품) 구매·사용에 주력하고 ▲종이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지양(머그컵, 텀블러, 대화용 용기사용 권장)하며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 화장실에서 핸드티슈 대신 드라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가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한편, 1회용 우산커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우산빗물제거기 설치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박영석 팀장은 "실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대책을 전 읍·과·소·읍·면이 함께 공유를 했다"고 밝히며



무주군이 1회용품 제로화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었다.(사진은 회의 모습)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과 포스터를 청 내에 부착하고 부서별 계획을 수립·공유하는 한편,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주민 맞춤형 교육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7월부터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관 및 기업 종사자, 식당 및 가

패 등 업소 관계자, 학생, 주민 등 계층별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무주군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어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확산 및 실천 확대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백신접종 완료자·1차 접종자 노인여가시설 이용 재개

진안군, 시설 방역 소독·예방접종 여부 확인 후 이용토록

진안군은 8일 관내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예약률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중단하자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자에 한해 노인여가시설 이용 재개를 결정했다.

군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작하고, 식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를 시작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관내 329개 경로당 운영을 재

개하기로 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재개 전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시설 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수군, 25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진안군은 8일 관내 14만1,857필지의 토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제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한시생계지원 사업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달 25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나 기존 복지제도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 기준 137만원),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한시생계지원TF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과 협조를 통해 지난 4일까지 현장신청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예상 대비 184%가 넘는 774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소득·재산 조사, 타 재산지원금 중복 조회, 심의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제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평가 'A' 등급

무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 등급(A)을 받았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및 마무리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와 ▲2020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 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을 평가했다. 무주군은 지난해 말 기준 83.40%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했으며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100%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이 매니페스토본부에 공개한 공약이행 정보에 따르면 총 77건의 공약 중 표교버섯생산유통기반 조성사

업, 무주 예체문화관 운영장 무료이용, 무주군 자전거 둘레길 조성 등 18개 사업은 추진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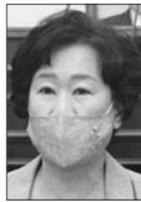
이외에도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태권도 유단자 귀환마을 조성,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무주읍 강변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시설 확충 등 31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미추진 사업은 2건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해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민선 7기 무주군의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만큼 남은 기간 내실을 더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재정결손 올바른 판단·수습 필요”

이해양 군의원 “282억원 대규모 재정결손 군민피해는 절대 안돼”

무주군의회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무주군의 재정결손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무주군수가 '무주군 재정결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며 무주군의 2020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161억 원, 간주예산 처리 및 이월잔액 미처리 건 134억원, 특별회계 잉여금 13억 원 등 총 282억원의 대규모 재정결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은 기존의 데이터와 집행을 전라, 국가세수, 경제흐름, 당해연도의 재원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해야 하는데도 적자를 내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기존의 사업을 감액해야 해 예산이 잘못됐음이 드러나는 자기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대표위원인 이해양 위원장은 "지난 연말 모든 예산을 의결한 후 무주군에 교부된 수혜복구사업 국·도비 분은 간주예산으로써 명시이월 처리하고 이 사항을 즉시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결산감사 이후 5월 27일에야 보고받았

다. 국·도비는 수납금 처리되어 이미 결산에 포함돼 2020년도 결산에서는 예산 누락, 2021년도 예산은 세입 없는 세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사례 두 가지가 무주군에 동시에 발생했다며 지방재정법상 회계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건전재정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양 위원장은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즉시처리·보고를 명문화했고 행정사무감사 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비율 자료를 요구해 분석하는 등 무주군의 재정건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해양 위원장은 "상황을 피하거나 감추려 할 일이 아니고 수치의 조정이 아닌 올바른 판단과 과감한 결정, 신속한 수습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었기에 단체장이 결정해야만 수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인해 행정기능 위축이나 어떠한 군민피해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해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무주군청 주홍규 기획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 의의를 통과된 후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예산이라 전년도 미사용 예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되며 자연잉여금으로 분류, 순세계 잉여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이해양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무주군의 현재 예산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20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군 선정

무주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현 년도 및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7개 분야 10개 지표의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군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하면서 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힘쓴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 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189억 중 187억을 징수, 98%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1억 원 중 27%(3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세외수입 운영 전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전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진안군은 8일 전라북도 내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기관 선정과 시상금 7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세외수입 징수율과 징수액 증감을, 이월체납액에 대한 적극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강화, 과태료 징수를 제고 등 7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군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변호판 영치, 세외수입 우수사례발표대회 수상 등 적극 징수를 추진하여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춘선 군수는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더욱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